BUFS

부산외대 중국학부 NEWSLETTER

2021. 12
(제 3 호)

발행인: 김동하 **에디터:** 이효영 **발행일:** 2021.12.1. 비매품.
발행처: 부산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대 중국학부, ☎ 051-509-5771 / 5799

중국학부 소식 *News*

● 제14회 전국 대학생 중국어 PPT 대회, 성공리에 치루어

11월 9일 해석 정해영 선생 장학문화재단, 주부산중국총영사관, GN컨설팅, 시사중국어사 후원으로 진행한 제14회 전국 대학생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중화권 취·창업을 위한 나의 필살기'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대회는 COVID-19 사태로 인해 작년에 이어 '지원-심사-시상'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총 29팀이 참가 신청을 했고, 이중 24팀이 최종 결과물(PPT 및 동영상파일)을 제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예선 및 본선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지원자들은 취업을 위한 중화권 산업(화장품, 식음료, IT 등)이해, 중국기업 성공전략 분석, 창업 아이디어, 역량(어학, OA 등)쌓기 방법 등을 소재로 실력을 겨루었다.

해석 정해영 선생상(대상)에는 한국 상품을 취급하는 가상 마트를 구성하여 제품선정, 고객만족, 수요 분석, 마케팅, 광고 방안 등을 제시한 부산외대팀(장윤서·서지수·윤홍)이, 주부산중국총영사상에는 한국 제품의 적절한 현지화 전략(글로컬리제이션)을 CJ그룹의 비비고 중국 진출 사례를 통해 소개한 서울대 이혜인 학생이 수상했다. 금상에는 고려대팀(조수원·송혜민), 은상에는 이화여대 이가현 학생, GN컨설팅 대표상에는 부산외대팀(여지원·조형준·홍위성·이서현·성동석)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동상에는 영남대(김수비·백수민), 인천대(이하늘·오연아)팀이, 장려상에는 고려대(김예지 외), 동아대(김아정 외), 부산외대(장연지 외)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들은 중국학부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 문화 산책

Culture

● 중국의 영화상 - 금계장, 백화장

박민수 교수

2019년 5월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계 3대 영화제와 대상은 칸영화제, 이탈리아 베니스국제영화제의 황금사자상,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의 황금곰상이 있다. 이들 상은 영화제의 본선 경쟁 부문 초청작 가운데 최고 작품에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부산국제영화제는 부분경쟁을 도입한 영화제로 대상 격으로는 뉴커런츠상 등이 있다. 또한 가장 권위있는 대종상은 국내영화제이다.

중국 국내영화제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상은 금계백화장(金雞百花獎)이다. 금계백화장은 금계장(金雞獎)과 백화장(百花獎)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다. 금계장은 1981년에, 백화장은 1962년에 첫 시상식이 열렸다. 일반적으로 금계장은 전문가상, 백화장은 대중상이라 부른다. 금계장은 중국영화인협회에서 수상작을 뽑고, 백화장은 중국의 영화 잡지인 〈대중영화〉(大衆電影)의 독자 투표로 뽑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는 시상식이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홀수 해에는 금계장, 짝수 해에는 백화장을 수여한다. 현재 홍콩 금상장과 타이완 금마장과 함께 중화권의 3대 영화제로 손꼽힌다.

올해는 푸젠성 샤먼에서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금계장(33회)이 수여된다. 작년의 대상은 천카이거(陳凱歌) 총감독의 〈나와 나의 조국(我和我的祖國)〉이 백화장(35회)을 수상했는데, 중국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7명의 애국적 행적을 각각의 감독들이 제작한 옴니버스 영화이다.

자료: 제33회 금계장, 중국금계백화영화제 홈 페이지 (www.zgjjbhdyj.com)

중국어 교수법 *Teaching*

● 중국어 어휘 교수법

심지언 교수

중국어 어휘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한글은 표음문자이고 한자는 표의문자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의태어·의성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국어의 특징 때문이다. 표의문자를 사용하는 중국인은 글자에 뜻이 담겨져 있어야 이해가 빠르다. 반면, 표음문자인 한글은 뜻이 없고 음으로만 되어 의성터·의태어를 배우는 것이 힘들다.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한자의 뜻을 익히면서 쓰는 법을 배운다. 운율에 맞춰 고시를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의 리듬과 음운을 습득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은 어떻게 한자를 배우고 어휘를 익혀야 할까?

표의문자에서는 '字'를 기본으로 하고, 표음문자에서는 '词'를 기본으로 한다. 언어의 특징에 따라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마련이다. 모국어 학습환경에서 중국어를 배우는(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字' 중심으로 가르쳐야 할까? 한자를 많이 안다고 중국어를 잘 하고, 중국어 어휘를 더 빨리 익힐까? 이에 대해 의견은 분분하다. 대외한어교육에서는 어휘교육이 '字'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字'와 '词'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지 선택권을 교수자에게 준다면, 개인적으로 후자를 택하겠다. 기초와 초급 단계에서는 '词'중심으로, 초중급 단계에서는 '词'와 '字' 혼합형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 초급 학습자들에게 택시는 그냥 '出租车'이고, 가을은 '秋'가 아니라 '秋天'이기 때문이다.

졸업 선배 취업 인터뷰 *Interview*

● 김*승. 중국학부 2021년 졸업생, DH저축은행

Q: 특별히 해당 회사 입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A: 현재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 특별히 뭔가 준비를 했다기 보다는, HSK, 토익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회사 입사에는 어학 역량 외에도 금융 자격증이나 금융에 대한 직무경험이 중요합니다.

Q : 4년간 학과 생활을 하면서 취업 준비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과목이나 활동은?
A: 한중경제론, 중국통상의 이해 등 과목은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역실무 과목을 통해서는 경제나 금융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Q: 자원봉사 및 인턴경력, 어학자격증 등 대학생들이 가지려 하는 '스펙'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나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턴과 새마을금고 행원 업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제금융봉사단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게 봉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산은행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서는 저의 비금융 전공에도 불구하고 실무경험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업은 기본적인 영어점수를 필요로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Q: 만약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A: 1학년 때 부터 교환학생으로 '3+1'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4학년 1학기에 '7+1'으로 한 학기의 교환학생을 갈 수 있었지만 짧고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HSK 자격증 취득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었겠죠.

Q: 후배들에게 졸업 후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무기' 3가지만 골라준다면?
A: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장은 1, 2차 필기나 논술시험이 있을 정도로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지 자신의 역량으로 그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Q: 해당 회사의 입사에 성공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A: 솔직함과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면접 때 제가 모르는 질문이 나와 잘 모르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장점에서는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중국어 학습 Learning

● 긍정의 중국어 한마디

김정훈 교수

최신 중국어 유행어 중에서 상대방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대표적 유행어인 “打call”에 대해 알아보자. 글자의 표면적인 형태만 봐서는 무엇을 부르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요즘 중국의 온, 오프라인에서 “응원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행어이다.

중국어에 “打气 (dǎ qì)”라는 단어가 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기나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다’라는 의미지만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다’라는 의미도 있다. “打call”에서 “打”는 여기서 파생된 것이고 “call”은 일본의 무대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콘서트에서 팬들이 가수를 응원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打”와 함께 결합이 되었다.

“打call”의 유래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콘서트에서 가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음악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며 함성을 지르고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응원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전치사 “为” 뒤에 그 대상을 써서 “~를 응원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加油 (jiā yóu)"와 같은 의미로 친구가 시험이나 면접을 볼 때 "我为你打call(wǒ wèi nǐ dǎ call- 너를 응원해)"이라는 표현으로 그 친구에게 격려와 응원을 표현할 수 있겠다.

● 인터넷 중국어 줄임말

허로천 교수

“u1s1，那个明星真是yyds。”
“你给我一个你的vx吧？”
“你看到我pyq里的zt了吗？简直xswl。”

영문 오타처럼 보이는 이 문자들은 무슨 뜻일까요?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소통할 때 사용되는 병음 줄임말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u1s1”은 하나면 하나라고 말한다. 즉 거짓이 아닌 사실과 팩트만 말한다”(有一说一)는 뜻입니다.
“yyds”는 영원한 신(永远的神)이라는 뜻입니다.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나 아이돌에 대해 말할 때 쓰이고, 자기가 특별히 추천하는 물품을 소개할 때도 씁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레전드’ 라는 단어가 있죠?
“vx” 는 중국 소셜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가리킵니다.
“zt”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공유해서 다시 게시하다는 것(转帖)을,
“pyq”는 위챗에서 게시물을 업로드 할수 있는 플랫폼(朋友圈)을 가리킵니다.
“xswl”는 너무 웃겨 숨 넘어갈 것 같다(笑死我了)라고 표현할 때 쓰는 줄임말 입니다.
중국도 한국 못지않게 인터넷 줄임말들이 마구마구 생성되고 있네요……

중국어 학습 Learning

● 표어로 배우는 중국어의 매력 (2)

기유미 교수

표어는 정책 알림에서부터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제한된 글자 수에 짧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표의(表意) 문자인 중국어는 이에 적합하다. 게다가 좌우 글자수와 의미 대칭을 통해 뛰어난 운율감을 만들어 낸다. 쌀쌀해지는 날씨와 함께 올 해 11월에도 어김없이 매년 치르는 수능이 찾아왔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무더운 여름 6월, 이틀에 걸쳐 대입시험(高考)을 친다. 가오카오(高考)를 준비하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표어에 숨어있는 중국어의 묘미까지 느껴보자.

jīnrì bùkěn máitóu　　míngrì yǐhé táitóu
今日不肯埋头　　明日以何抬头
오늘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면, 내일 머리를 어찌 들겠는가

좌우 의미 대칭
今日 ↔ 明日
埋头 ↔ 抬头

lèile xiǎngxiǎng fùmǔ　　juànle kànkàn wèilái
累了[想想]父母　　倦了[看看]未来
피곤하면 부모를 생각하고, 고단하면 미래를 생각해라

좌우 표현 중첩
累了 ≒ 倦了
想想/看看

gāokǎo bù nǔlì　kǎohòu chéng núlì
高考不努力　　考后成奴隶
수능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시험 후 노예가 된다

좌우 운율 대칭
努力/奴隶 [núlì]

gāofǒu？ fùfǒu？ shuàiǒu？ fǒu，　　gǔnqù xuéxí
高否？　富否？　帅否？　否，　　滚去学习
키 크니? 부자니? 잘생겼니? 아니라며, 돌아가서 공부해라!

동일 운율 중첩
○否 ○否 ○否

지금 중국은 *Issue & News*

● 시진핑의 중국몽, 구국·흥국·부국에 이어 No.1으로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은 11월 8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베이징에서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채택했다.

당 중앙위는 이번 역사 결의를 통해 "시진핑 동지를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 현실과 결합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결합을 통해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번 '역사 결의'에서 두 가지의 "100년의 분투(奮鬪)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당 창건 100주년(2021년)까지 '소강(小康) 사회'를 완성"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新) 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까지 근대적 사회주의 강국 실현"을 주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올해까지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과를 과시함으로써 한 시대를 구분 짓고, 다음 목표를 향해 분투할 새로운 100년 간 진전할 새로운 국가 노선을 선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있어서 추종해야 할 주요 사상으로, 마르크스주의, 마오(毛) 사상과 함께 새로이 '시진핑(習近平)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번 역사결의는 1945년 마오쩌둥, 1981년 덩샤오핑에 이어 세 번째로 사실상 내년 가을 3연임을 통한 장기집권 채비를 마쳤다. 세번째 역사결의가 채택되면서 시 주석의 위상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수준으로 격상되었으며, 중국이 G2를 넘어 향후 세계 1위로 올라서기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오혜정 교수

뉴스레터 공지사항 *Notice*

뉴스레터 이메일 서비스 신청 안내

뉴스레터는 pdf 파일로 메일 서비스 중 입니다. 메일로 받기를 원하는 구독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china@bufs.ac.kr ▶ 메일 제목: 뉴스레터 구독

▶ 보낼 내용: ① 이름, ② 소속 학교, ③ 학생 혹 교사 구분, ④ 이메일

중국학부 홈 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안내

우리 학부에 관한 최신 정보는 우측 QR 코드에서 홈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중국학부 유튜브 채널

부산외대 중국학부